

티셔츠색 선호, 외모만족도와 외향성과의 관계

—남녀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유경숙

目 次

I. 서론	V. 결론
II. 이론적 배경	참고문헌
III. 연구방법	ABSTRACT
IV. 결과 및 논의	

I. 서론

다른 사람을 지각하는 첫번째 단서중의 하나가 그 사람의 신체적 외모로서 의복의 중요성은 첫인상 형성과정에서 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의복은 인간행동의 한 분야로서 계층, 성, 종교의 사회적인면과 개인의 심리적인 특성을 나타내므로 심리적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색은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디자인 요소이며 가장 큰 표현적 요소로서 개인이 자신을 표현하는데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그들이 원하는 인상을 창조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의복의 색채는 착용자의 기호, 성격, 문화적 배경 등에 따라 다르며 색은 의복선택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

개인의 외모에 대한 개념에는 신체적 특성에 의복착용의 특성이 포함되는 것으로 외모와 사회적 수용 사이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¹⁾ Creekmore²⁾는 현대인들의 의복행동은 착용자의 성격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Sheldon³⁾은 체형과

성격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성격이나 체형이 의복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고 하였다. 또한 의복의 여러 변인들 중에서 성격과 관련성을 지닌 색상^{4), 5), 6), 7), 8)}을 중심으로 하여 현대사회에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사회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외향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의의 있다고 하겠다. 또한 외모에 대한 만족 여부가 사회성에 영향을 미치므로^{9), 10), 11)} 외모만족도가 사회적 활동에 영향을 주는 외향성과 관련이 있으리라고 본다 따라서 개인의 표현적 요소이며 의복선택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 의복색 선호와 개인의 감정과 행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외모에 대한 만족도와 성격의 일면인 외향성과의 관계를 외모가 개인의 자아개념에 큰 영향을 주는 시기로 보이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살펴보는 것은 의의 있다고 하겠다. 티셔츠 색은 의복색 선호를 위해 면셀 색상의 기본색인 빨강, 노랑, 초록, 파랑, 보라색에 주황, 남색, 분홍을 더하여 모두 8가지의 색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는 성, 학교 및 외향성에 따른 차이를 잘 파악하기 위해

서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선호하는 색보다 느낌 전달이 뚜렷한 색을 조사하는 것이 의의있다고 보기 때문에 선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남녀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티셔츠색 선호에 대한 차원을 분류하고, 티셔츠색 선호 및 외모만족도에 관하여 성, 학교 및 외향성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는 데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의복색 선호

색은 의복디자인의 가장 큰 표현적 요소이며 개인이 자신을 표현하는데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그들이 원하는 인상을 창조하는 데 도움을 준다.

Alschuler와 Huttwich¹²⁾는 한색 및 난색과 성격유형간의 관계연구에서 난색계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세계에 대하여 흥미와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민감하며 개방적인 경향이 있고 사회환경에 순응하며 객관적 세계에 중점을 둔다고 하였다. 한색계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외부 세계와 격리되어 자기중심적인 특성을 보이고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며 자기를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감정이 차고 소극적이며 주관세계에 중점을 두는 성격특성을 나타내었다.

나수임⁶⁾은 여고생의 착복색선호와 성격특성과의 관계연구에서 의복선택 기준은 색상과 디자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성격특성과 기호색에 대한 유의적인 상관관계는 없었고, 여고생은 고명도 색상에 대한 선호가 높다고 하였다. 또한 사회성이 클수록 밝은 색을 선호하고 어두운 색을 싫어하였다.

이미경¹³⁾은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사회적 자아가 높은 사람은 밝은 색을 선호하고 밝고 선명한 색과 따뜻한 색을 선호하였다. 20대는 따뜻한 색 계통을 선호하여 핑크, 주황 및 노랑

을 선호하였으며, 30, 40대는 차가운 색을 선호하였는데 30대는 연두와 바다색을 선호한 반면 40대는 하늘색과 풀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인자⁸⁾는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의복색이 따뜻하고 밝은 색을 선호하는 사람은 행동적이고 인정이 많으며 실천적인데 비해 어둡고 탁한 색을 선호하는 사람은 사색적이며 냉정하고 객관적이며 사려성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옷감과 의복색을 선택할 때도 옷감을 먼저 선택하는 사람은 안정성이 있고 사회성이 높는데 비하여 색을 먼저 선택하는 사람은 감정면에서 불안감이 있고 사회성이 비교적 낮다고 하였다.

2. 외모만족도와 의복

한 개인이 그 자신을 대상으로 경험하는 한 방법은 'bodily me'로서의 신체적 자아이다. 신체적 자아의 지각을 body image라고 부르는데, body image는 자아개념의 근본적인 핵심일 뿐만 아니라 성숙하고 나서도 자아개념의 한 평가적인 구성요소가 된다.¹⁴⁾ 사회생활에서 인간의 외모는 언제나 의복을 착용한 상태로 평가되는 것이므로 현대에서는 의복의 상징성이 더욱 강조되며 자기표현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

의복은 착용자의 신분, 직업, 태도, 가치관, 성격을 반영해 주는 '無言의 傳達手段'이며 개개인의 심리적 상태를 전달하는 신호언어(sign language)¹⁵⁾로서, Sontag와 Schlater¹⁶⁾는 의복은 자아의 한 구성요소이고 자아가 형성되고 확인되는 외모의 한 측면이며 자기에 대한 정체감, 기분, 태도를 전달하는 의미의 상징이라고 하였다. 또한 의복은 자존심의 표현으로 지각되며 신체적 만족과 관계되어, 약한 신체적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신체적 한계를 뚜렷하게 해주는 선명한 색상과, 바탕과 무늬의 색대비가 강한 직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tone¹⁷⁾은 의복이나 개인의 외모는 전달의 기

본적인 구성요인으로 나타나며 이와 같은 형태를 통하여 자아가 형성되고 유지되며 변화한다고 하였다. 외모와 신체적 능력은 개인의 생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외모와 사회적 참가도와외 관계성 연구에서 좋은 외모를 갖고 있는 사람은 더욱 많은 특별활동에 참가하여 단체활동에서도 활동적인 것으로 나타나¹⁸⁾ 외모가 사회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Cannon, Staples 및 Carlson¹⁰⁾의 연구에서 소녀들은 소년들보다 모든 학년에서 외모 관심이 더욱 높았고 사회활동과 외모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구자명⁹⁾의 연구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외모만족도가 높았으며 외모만족도가 남녀 모두 사회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다.

고애란¹⁹⁾의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체에 대하여 보다 만족한 사람은 의복에 대해서도 만족하며 다양한 신사복 스타일을 여러 상황에 착용하는 의복으로서 좀 더 넓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영운²⁰⁾의 연구에서 신체적 만족도는 의복만족도, 유행에 대한 관심 및 유행스타일 선호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신체에 만족할수록 자신의 의복에 대해서도 만족하고 유행에 대한 관심도 높으며 당시의 유행스타일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ichard와 Hawthorn²¹⁾은 남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체만족도는 가치관 및 의복태도에 의미있는 관계가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남자는 신체의 외모보다는 신체의 기능에 더 관심을 가지므로 그들의 신체를 의복과 분리시켜 본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개인의 외모에 대한 개념은 신체이미지와 의복착용의 특성이 동시에 포함되며 사회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3. 외향성과 의복

내향성-외향성(Introversion-Extroversion)

이란 한 사람의 근본적인 사고 및 행동의 방향이 자신의 내부로 향했는가 또는 외부로 향했는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내향성-외향성의 근본적인 차이는 주관성과 객관성에 있어 내향적인 사람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데 있어 주관적인 반면 외향적인 사람은 객관적인 원칙하에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한다는 것이다.¹⁴⁾

Allport²²⁾는 내향적인 사람은 주관적 세계가 중요하므로 항상 원칙에 따라 움직여서 융통성이 없으나 섬세한 감정을 갖는 반면에, 외향적인 사람은 객관적이므로 현실적이어서 실용성과 필요에 의해서 제어되며 새로운 사태에 쉽게 적응할 수 있으나 감정은 섬세하지 못하다고 하였다.

Kahng²³⁾의 한국여대생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외향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의복을 입었다. 강혜원²⁴⁾의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외향적인 사람은 추종성과 유행에 관심이 많게 나타나 외향적인 사람은 외부세계와 다른 사람을 중요시하고 변화에 적응하기 쉬운, 소위 사교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의복에서도 다른 사람과 보조를 맞추고 새로운 변화를 시대의 요구로서 쉽게 받아들여려고 한다고 하였다.

Lopez,²⁵⁾ Godfrey²⁶⁾ 및 Shipman²⁷⁾의 연구에서는 내향성-외향성 성격과 색에 대한 기호 사이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Birren²⁸⁾은 찬색을 선호하는 사람은 내향적이고 따뜻한 색을 선호하는 사람은 외향적이라고 밝혔으며, Compton⁷⁾은 사회성이 높은 사람은 어둡고 진한 색을 좋아하는 반면 사회성이 낮은 사람은 옅은 색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박길순²⁹⁾은 내향성-외향성 성격과 문양과의 관련연구로 외향적인 사람일수록 큰 무늬를 선호한다고 하였으며, 홍선옥³⁰⁾은 성인남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외향성이 강한 사람은 사교적이며 활동적인 성격으로 타인과 다른 독특한 의복을 통하여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고자 하며 의

복을 통하여 아름다움을 성취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또한 외향적인 성격의 유형은 매우 사교적이며 융통성이 있고 자신을 외부에 노출시키기를 좋아하며¹¹⁾ 대담한 이미지를 좋아하였다.³¹⁾

김미영¹⁾은 여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외모만족도는 외복만족도 및 신체만족도와 의미있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외모에 대한 개념이 신체에 의복을 더한 개념이라고 한 Horn¹⁵⁾의 견해를 지지하여 외모와 의복의 밀연적인 관계를 재확인시켜 주었다.

III. 연구방법

1. 측정도구

본 연구는 질문지에 의한 조사연구방법으로 질문지는 색선호, 외모만족도, 외향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티셔츠색 선호검사는 먼셀 색상의 빨강, 노랑, 녹색, 파랑, 보라의 5가지 기본 색상에 주황, 남색 및 분홍을 합쳐 모두 8가지 색을 사용하였다.

분홍을 제외한 7가지 색은 (주)마이크로 색채에서 제조한 편선지 색종이를 사용하였으며, 분홍은 의복색으로 적합한 색을 선택하여 색상 칸트지를 사용하였다. 색종이의 크기는 $1 \times 1.5m^2$ 로 제시하여 자신의 티셔츠색으로서 입고 싶은 정도를 매우 싫다, 싫다, 그저 그렇다, 좋다, 아주 좋다의 5단계 평정척도법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이 티셔츠색 선호는 의복색 선호를 알아보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티셔츠는 디자인이 가장 단순하며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선택가능성의 정도가 비교적 고르게 나타나는 품목으로 판단되며 의복색 선호 측정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어 채택하였다.

외모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김미영¹⁾이 사용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이것은 사회생활에서 개인이 자신의 신체 및 신체장식 상태를 포함한

겉모습에 대한 만족감의 정도를 의미한다. 총 10 문항으로 5단계 평정법으로 측정하였으며, 가능한 점수는 10점에서 5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외모에 대하여 만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10문항의 α -신뢰도 검사 결과 신뢰도는 .79였다.

외향성 검사는 이현수¹¹⁾가 사용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5단계 평정법으로 평가하였다. 총 10문항으로 가능한 점수는 10점에서 5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외향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외향성은 上, 中, 下 집단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으며 下 집단은 10~29점으로 86명에 누적백분율 25.7%, 中 집단은 30~37점으로 167명에 49.9%, 上 집단은 38~50점으로 82명에 24.4%이었다. Cronbach의 α -신뢰도는 .85였다.

2. 표집대상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표집대상은 광주에 거주하는 남녀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별과 학교를 고려한 편의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였다. 고등학생은 금호고등학교와 대성여고의 학생으로서 남자 87명, 여자 95명이었으며 대학생은 남여공학인 광주대학교 학생으로서 남자 98명, 여자 55명이었고 전체 대상은 335명이었다. 학년분포는 고등학생은 2학년이었으며 대학생은 1, 2학년이었다.

조사시기는 1995년 5~6월이었고 수집된 자료는 SPSS/PC+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티셔츠색 선호 및 외모만족도가 성, 학교 및 외향성에 따라 어떤 상호작용효과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3(외향성) \times 2(성) \times 2(학교)의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티셔츠색 선호의 요인분석

티셔츠색 선호에 사용된 8가지의 색을 성에 따라 주성분 분석방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행하였다. 아이젠 값이 1이상인 요인이 3개였으므로 요인수를 3개로 정하였으며 3개의 요인은 전체변량의 51.7%에 해당되었다. 그 결과 고유치 1.08이상의 3개 요인을 택하여 varimax방법으로 직교회전하였다. 요인별로 결정된 티셔츠색 선호의 요인과 요인 부하량은 <표 1>과 같다. <표 1>에서 (R)로 표시된 항목은 반대로 해석된다.

<표 1> 티셔츠색 선호에 대한 요인분석

요인1	따뜻한	요인부하량
	노랑	.77
	분홍	.70
	주황	.61
	총변량에 대한 설명력(%) =20.7	
	고유치=1.66	
요인2	어두운	요인부하량
	남색	.84
	보라	.55
	총변량에 대한 설명력(%) =17.5	
	고유치=1.40	
요인3	평범한	요인부하량
	초록	.84
	빨강(R)	-.53
	파랑	.46
	총변량에 대한 설명력(%) =13.5	
	고유치=1.08	

요인 1은 따뜻한 색에 관한 것으로 문항의 요인 부하량은 .61 이상으로서 노랑, 분홍, 주황의 3가지의 색이 포함되었다. 요인 2는 어두운 색으로서 2개의 색이 해당되었으며, 요인 부하량은 .55 이상으로 색은 남색과 보라가 포함되었다. 요인 3은 평범한 색에 관한 것으로 3개의 색이 해당되었으며 요인 부하량이 .46 이상으로 초록과 파랑은 평범한 색으로, 빨강을 평범하지 않은 색으로 보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티셔츠색 선호는 따뜻한, 어두운, 평범한 등 3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의복에서의 색 선호는 한가지 색을 좋아하는 사람

은 그와 비슷한 성질의 다른 색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성, 학교 및 외향성에 따른 티셔츠색 선호의 차이

티셔츠색 선호에 대한 성, 학교 및 외향성의 3개 독립변인에 따른 차이와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고, 보조적 분석으로서 3개의 독립변인 각각의 평균값의 차이와 그 영향의 순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multiple classification analysis (MCA)를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볼 때 빨강은 성, 학교 및 외향성의 3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는 없었고 2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도 없었다. 그러나 성, 외향성은 각기 빨강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MCA의 평균값 차이에 의하여 각 독립변인 집단을 비교하면 남자는 빨강을 선호하지 않으나 여자는 선호하는 편이었고 외향성에 따른 차이에서 외향성이 높은 사람은 빨강을 선호하나 외향성이 낮은 사람은 빨강을 선호하지 않았다. 즉 빨강은 여자와 외향적인 사람이 선호하여 빨강은 여자의 색이라는 고정관념을 확인시켜 준다. 외향적인 사람이 강하며 자극적인 빨강을 선호하는 것은 외향적인 사람은 사교적이고 대담한 이미지를 좋아하기³¹⁾ 때문에 강한 색의 의복으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가¹¹⁾ 의복색 선호에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빨강 선호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성, 외향성 각각의 eta 값을 비교하면 성이 .26, 외향성이 .21로서 외향성보다 성이 빨강 선호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에서 파랑색과 주황색 선호는 성, 학교 및 외향성과 유의적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 및 2개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도 없었다. 이것은 파랑이 무난한 색으로 특징적인 면이 약하므로 개인의

특성에 따라 선호도의 차이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주황은 티셔츠 색으로 대부분의 젊은 층이 착용하는 정도가 낮기 때문에 집단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표 2〉 티셔츠색 선호 및 외모만족도에 대한 성, 학교 및 외향성에 의한 삼원변량분석

분석 방법	변량원	df	티 셔 츠 색								외모만족도
			빨강	파랑	주황	남색	초록	분홍	노랑	보라	
3원 변량 분석	성(A)	1	27.46***	.01	3.51	4.09*	5.67*	5.52*	1.00	10.95**	8.68**
	학교(B)	1	1.11	1.41	.81	2.54	.36	9.09***	6.11*	2.66	.44
	외향성(C)	2	9.06***	.48	.75	1.20	.76	3.19	.79	3.72*	21.80***
	A × B	1	.39	.17	2.80	3.68*	1.61	.08	1.59	.41	1.13
	A × C	2	2.06	.92	1.90	.83	.69	.21	.08	.16	0.97
	B × C	2	.29	.05	1.44	.23	.25	1.43	.10	1.02	.08
	A×B×C	2	.21	1.88	1.77	.84	.83	.69	2.30	.62	.75
	집단내(오차)	323									
MCA	변인	속성	평균의 차 ETA	평균의 차 ETA	평균의 차 ETA	평균의 차 ETA	평균의 차 ETA	평균의 차 ETA	평균의 차 ETA	평균의 차 ETA	평균의 차 ETA
	성	남 여	-.27 .34	-.01 -.00	.11 -.13	-.09 .11	.13 -.16	-.11 .13	-.03 .04	.20 -.25	.89 -1.10
외향성	학교	고등학생	-.01	.06	-.07	-.07	-.05	-.17	-.14	-.14	-.37
		대학생	.02	-.07	.08	.08	.06	.21	.17	.17	.44
외향성	학교	下	.01	.06	.07	.07	.05	.16	.13	.13	.07
		中	-.30	-.08	-.13	-.10	.10	-.23	-.14	-.14	-2.91
		上	-.04	.02	.04	-.02	-.01	.18	.02	.17	.07
외향성	학교	上	.40	.05	.06	.15	-.09	-.12	.01	-.21	2.91
		中	.22	.05	.07	.08	.06	.15	.07	.15	.34
		下									

* P<.05 ** P<.01 *** P<.001

〈표 2〉에서 남색에 대한 선호는 3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는 없었으나 성 및 학교의 2개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주효과에서 학교나 외향성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성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MCA분석에서 성에 따른 평균치의 차이를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남색을 더 선호하였다. 전통적으로 남색은 남자의 의복색으로 간주되었으나 여자가 더 선호하는 것은 젊은층은 기성세대의 감각을 벗어나 새로운 의복가치관으로 자기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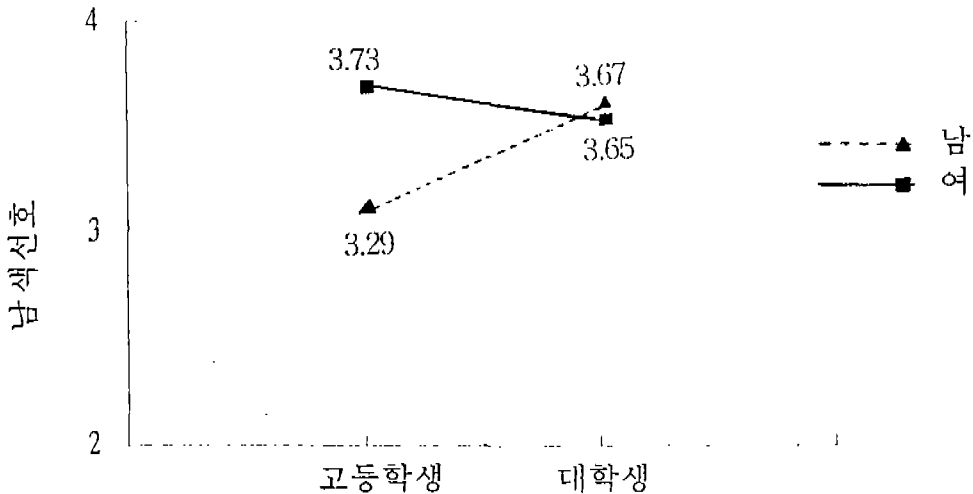
〈그림 1〉은 남색 선호에 대한 성과 학교에 따른 상호작용형태를 나타낸다. 대학생보다 고등학생

의 남녀 차이가 크게 나타나 여자 고등학생보다 남자 고등학생의 남색 선호가 낮게 나타났다. 남색은 전통적으로 남성적인 색으로 간주되는데 특히 남자 고등학생이 전체 기성 연령층의 의복규범에 비동조하려는 경향³²⁾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남색 티셔츠를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초록색에 대한 선호는 〈표 2〉에서 3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없었고, 2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도 없었다. 주효과에서 학교나 외향성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성에 따른 차이를 나타냈다. MCA분석에서 성에 따른 평균치의 차이를 보면 여자보다 남자가 초록색을 더 선호하였다. 이는 초록색이 수수하고 평범한 색으

로 인식되기 때문에 패션에 관심이 많으며 젊고 발랄한 분위기의 옷을 좋아하는 여자는 선호하지

않으며 남자가 더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1> 남색 선호에 대한 성 및 학교에 의한 상호작용형태

분홍색은 <표 2>에서 3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없었고 2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도 없었다. 주효과에서 외향성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성이나 학교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MCA분석에서 여자는 분홍색을 선호하나 남자는 선호하지 않았으며 고등학생은 선호하지 않으나 대학생은 선호하였다. 이것은 분홍이 고명도 저채도의 파스텔조 색상으로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주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분홍 선호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성, 학교 각각의 eta 값을 비교하면 성이 .10, 학교가 .16으로서 성보다 학교가 분홍 선호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랑색에 대한 선호는 <표 2>에서 3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없었고 2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 효과도 없었다. 주효과에서 성이나 외향성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학교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 MCA분석에서 학교에 따른 평균치의 차이를 보면 고등학생은 대학생보다 노랑

색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고등학생이 대학생보다 노랑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고등학생의 경우 또래집단의 승인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눈에 띄는 의복보다 동조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보라색에 대한 선호는 <표 2>에서 3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없었고 2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 효과도 없었다. 주효과에서 학교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성이나 외향성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MCA분석에서 성에 따른 평균치의 차이를 보면 남자는 보라색을 의복색으로 선호하나 여자는 선호하지 않았으며 외향성이 높거나 낮은 집단보다 외향성이 중간인 집단의 보라색 선호가 높은 편이었다. 이는 제시된 보라색이 명도와 채도가 낮은 어두운 보라색이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보라 선호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성, 외향성 각각의 eta 값을 비교하면 성이 .19, 외향성이 .15로서 외향성보다 성이 보라 선호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3. 성, 학교 및 외향성에 따른 외모만족도의 차이

외모만족도는 <표 2>에서 3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없었으며 2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도 없었다. 주효과에서 성이나 외향성에 따라 각각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으나 학교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MCA분석에서 나타난 성에 따른 차이를 보면 여자보다 남자의 외모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자가 남자보다 외모만족도의 기대수준이 높아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서 기대수준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로 보여진다. 외향성에 따른 평균치의 차이를 보면 외향성이 낮은 집단은 낮은 외모만족도를 보이고 외향성이 높은 집단은 높은 외모만족도를 나타냈다. 이는 구자명⁹⁾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자신의 외모에 대하여 자신을 가질수록 외향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외향성이 높을수록 외모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외모만족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성, 외향성 각각의 eta 값을 비교하면 성이 .16, 외향성이 .34로서 외향성이 성보다 외모만족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남녀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티셔츠색 선호와 외모만족도를 성, 학교 및 외향성에 따른 차이를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티셔츠색 선호는 빨강, 파랑, 주황, 남색, 초록, 분홍, 노랑, 보라색으로서 8가지 티셔츠의 색을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은 광주에 거주하는 남녀 고등학생과 대학생 357명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티셔츠색 선호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색선호

는 따뜻한 색, 어두운 색, 평범한 색으로 분류되었다. 노랑, 분홍, 주황은 따뜻한 색으로, 남색, 보라는 어두운 색, 초록과 파랑은 평범하며, 빨강은 평범하지 않은 차원으로 나타났다.

2. 빨간색은 성, 외향성 각각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 남자는 빨간색 의복을 선호하지 않으나 여자는 빨간색을 선호하였으며, 외향성이 높은 사람은 빨간색을 선호하였으나 외향성이 낮은 사람은 빨간색을 선호하지 않았다.

3. 파란색과 주황색은 성, 학교 및 외향성 각각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4. 남색은 성 및 학교의 두개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 효과를 보여 대학생보다 고등학생의 남녀 차이가 크게 나타나 남자 고등학생보다 여자 고등학생의 남색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 성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 남자보다 여자가 남색을 티셔츠 색으로 더 선호하였다.

5. 초록색은 성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여자보다 남자의 선호가 더 높았다.

6. 분홍색은 성 및 학교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여자는 의복색으로 분홍색을 선호하나 남자는 선호하지 않았으며 고등학생보다 대학생은 분홍을 티셔츠 색으로 선호하였다.

7. 노란색은 학교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서 고등학생보다 대학생이 노란색을 더 선호하였다.

8. 보라색은 성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서 남자는 보라색을 의복색으로 선호하였으나 여자는 선호하지 않았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보라색이 저채도의 색상이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본다.

9. 외모만족도는 성 및 외향성 각각에 의해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 여자보다 남자의 외모만족도가 높았으며 외향성이 높은 집단의 외모만족도가 높았다.

이상에서 볼때 티셔츠 색과 같은 의복색 선호는 외향성의 성격 특성에 의해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

으며 특히 빨강과 같이 눈에 띄는 색에 대한 선호가 성 및 성격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정도가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1) 김미영(1984). 여자 중·고등학생의 교복자율화와 외모만족도에 관한 연구, 상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Creekmore, A.M.(1966). *Methods of Measuring Clothing Variables*. Michigan Agriculture Experiment Station Project No. 783, Michigan state university
- 3) Rosencranz, M.L.(1977). *Clothing Concepts: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 pp.19~20
- 4) Taylor, L.C. and Compton, N.H.(1969). Personality Correlates of Dress Conformity. *Journal of Home Economics*, 60(8), pp.653~656.
- 5) 이은영(1993). 복식의장학, 서울 : 교문사, p. 104.
- 6) 나수임(1984). 여고생과 착복색 선호와 성격 특성과의 상관 연구. 석사학위논문, 상명여대 대학원.
- 7) Compton, N.H.(1962). Personal Attributes of Color and Design Preferences in Clothing Fabrics. *The Journal of Psychology*, 54(1), p. 191~195.
- 8) 이인자(1976). 성격과 의복디자인 선호간의 상관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4(2), pp.785~799.
- 9) 구자명, 이명희(1994). 남녀 중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사회성 및 성취동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5), pp.153~163.
- 10) Cannon, K.L., Staples, R., and Carlson, (1952). Personal Appearance as a Factor in Social Acceptance. *Journal of Home Economics*, 44(9), pp.710~713.
- 11) 이현수(1883). 성격특징의 요인구조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논문집, 27, pp.111~137.
- 12) Alschuler R.H. and Hattwich, L.W.(1947). *Painting and Personality*. Chicago : Univ. of Chicago, Press.
- 13) 이미경(1984). 성인 여성의 의복디자인 선호도와 자아개념과의 관계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14) 강혜원(1994). 「의상사회심리학」 서울 : 교문사, pp.220~229.
- 15) Horn, M.J.(1975). *The Second Skin: An Interdisciplinary Study of Clothing*. 2nd ed., Boston : Houghton Mifflin Co. p.2.
- 16) Sontag, M.S. & Schlater, J.D.(1982). Proximity of Clothing to Self: Evolution of a Concept,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 pp.1~8.
- 17) Stone, G.P.(1965). Appearance and the Self in Roach, M.E. and Eeicher, J.R. (Eds.) *Dress, Adornment,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 : John Wiley & Sons, Inc., pp.216~222.
- 18) Ryan, M.S.(1966).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p.69.
- 19) 고애란(1983). 성인남자의 의복행동과 강화통제 및 신체적 만족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 이영운(1982). 중년기 여성들의 신체적 만족도와 의복행동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1) Richards, E.A. & Hawthorn, R.E.(1971). Values, Body Cathexis and Clothing of Mal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Home Economics*, 63(3), pp.190~194.
- 22) Allport, G.W.(1961). *Pattern and Growth in Personality*. N.Y : Holt, Rinehart and

- Winston, Inc., p.198.
- 23) Kahng, H.(1971). Clothing Interests and Clothing Aspirations Associated with Selected Social-Psychological Factor for a Group of College Women in Korea,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24) 강혜원(1974). 대학생의 개성과 유행을 중심으로 한 의상행위와 성격특성과의 관계. 연세논총, 11, pp.349~376.
- 25) Lopez, N.N.(1958). The Relationship Among Color Preferences : The Use of Color in Dress, and Extroversion and Introversion. Masters Thesis,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26) Godfrey, T.P.(1970). Selected Personality Variables and Individual Preference for and Cool Color Related to Pupillary Response to Visual Stimuli. *Home Economics Research Abstract*, p.65.
- 27) Shipman, D.(1971). Preference for Apparel Fabric Color and Texture as Related to Extroversion and Introversion and Socio-Economic Background among Seventh Grade Girls. *Home Economics Research Abstract*, p.67.
- 28) Biren, F.(1955). *New Horizons in Color*. New York : Reinhold Publishing Corporation, cited by Rosencranz, M.L.(1977). *Clothing Concepts :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 p.34.
- 29) 박길순(1981). 직물문양의 기호와 내향성-외향성 성격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0) 홍선옥(1983). 성인남자의 의복행동과 사회적 내향성-외향성 성격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1) 이미혜, 이인자(1990). 성격차원이 선호 의복 상표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여성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8(3), pp.13~24.
- 32) 이주현, 강혜원, 조길수(1986). 남자고등학생의 의복행동과 성격할 태도 간의 상관 연구. 한국 의류학회지, 10(3), pp.63~70.

ABSTRACT

T-shirts Color Preferences and Appearance Satisfaction Related to Extroversion.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classify the T-shirts color preferences and to examine how T-shirts color preferences and appearances satisfaction vary according to sex, school, and extroversion.

Questionnaire was comprised of four sections : 8 Likert type items of T-shirts color preference ; 10 Likert type items of appearance satisfaction ; 10 Likert type items of extroversion ; and 2 demographic variables.

Samples were 335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in Kwangju, Korea.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factor analysis and three-way ANOVA.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the followings.

1. Three segments of T-shirts color preference derived from factor analysis : F.1 'warm' ; F.2 'dark' ; F.3 'commonplace'.
2. Women in high extroversion group liked red color better than men and low extroversion group.
3. There were not significant differences in blue and orange color preference according to

sex, school and extroversion.

4. There was interaction effect between sex and school on dark blue color preference. Women liked dark blue color better than did men.

5. Men liked green color better than did women.

6. Women and college students liked pink color better than did men and high school students.

7. College students liked yellow color better than high school students.

8. Men and middle level extroversion group liked purple color better than did women and high and low extroversion group.

9. Men and high level extroversion group had more appearance satisfaction than women and low extroversion.